

소비자의 눈 =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울림



홍 월 표 대표
(사)미래가족문화연합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분과위원장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은 신나는 농촌체험과 즐거운 가족여행이라는 부제로 열려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좁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를 살리는데 주력하였다. 2005 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의 페스티벌은 규모면에서도 두 배로 커졌을 뿐 아니라 후원한 관계 기관 참여도 많아졌고 부대행사도 다양해져서 작년보다 한층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농촌의 특화된 생산품을 선보인 전국농민들과 도시 소비자들은 2007 페스티벌이 도농교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축제로서 자리매김한 것에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소비자들은 전시장을 돌면서 농업과 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기도 하고 새로운 의미 해석을 도출해 내기도 하면서 도

시와 농촌이 어떻게 밀착되어 나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였다.

제1관, 제2관, 제3관, 야외 전시장 등 네 곳에서 전국의 농촌과 지자체 및 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함께 참가하여 생산자는 자신들의 농산물과 특산품을 선보이고, 기타 기관들은 여러 가지 홍보용 책자와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여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역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은 매우 고무적이었다. 이처럼 유관기관들이 도시와 농촌의 매개자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도농교류의 올바른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농촌체험을 통해 농촌에 대한 지식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체험거리는 그야말로 도시 속에 농촌을 선사한 것과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러운 웅진 장봉팜스테이마을



전북 장수 하늘내 들꽃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전시장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 야외 타악기공연



도농교류페스티벌의 사장을 토피어리로 제작 메인입구에 전시

같이 특별한 추억거리를 안겨주었다. 꿈과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신기한 모래놀이 세상인 워너빌샌드나, 대나무를 사용해 만든 전통놀이용들은 어린이들에게 기쁨을, 친환경농업에 이용하기 위해서 기르는 천적인 곤충의 세계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을 선사하였다. 가족단위의 소비자들은 곳곳의 청정 지역의 친환경 특산품과 전통식품을 한곳에서 보고, 우리 농산품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만큼 훌륭하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농촌의 생산자들은 자신들의 상품을 잘 알릴 수 있는 능력신장의 과제를 안고 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우러져야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사운영에서는 서로가 상대적인 입장이 아니라, 협력자의 입장으로 역할분담의 체

제를 갖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소비자가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주체자로 참여하여 홍보와 판매를 돕는다면 행사의 목적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으리라 본다. 행사 기획 때부터 소비자 단체를 참여시켜 도농의 어울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다음 해에는 기대해 본다.

살거리와 먹거리가 풍성한 페스티벌이 되기 위해서 행사기간 동안 살거리의 장터와 먹거리의 장터를 (شط터를 포함한) 함께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5월은 농촌은 농사로 바쁘고, 도시는 도시대로 행사가 넘쳐나는 때이다. 여기저기 나누어져서 기대만큼의 붐이 일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행사시기를 6월 10일 전후로 정하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

각 지자체 유관기관의 협조도 균형을 이루어 대다수의 생산자들이 고른 관심과 혜택을 받아 자신들이 흘리는 땀의 대가를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녹색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목표로 도시와 농촌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농촌공사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우리 농촌이 효율적 생산 공간이 되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고 안정된 복지공간이 되고 도시와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소비자의 한사람으로 당부하고 싶다. ㉞